

# 서구는 계급따라 이념差... 우리는 세대·학력·지역이 좌우

## 薛東勳 교수 총평



한국인들은 대부분 중도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보수와 진보는 중도와 내의 상대적 개념이다.

한국에서 보수파와 진보파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대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수적이고, 반대로 젊을수록 진보적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기준은 교육수준이다.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일수록 진보적이고, 저학력자일수록 보수적이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가 있다. 30대는 20대보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다. 이른바 386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녔던 사람들은 그들이 20대일 때 권위주의적 폭압을 뚫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여전히 정치문제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20대는 정치부문에서만 30대보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 사회·경제부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

집단이다.

한국에서 보수파와 진보파를 가르는 세 번째 중요한 기준은 거주지역이다. 지역간 이념 성향 차이는 정치부문에 국한된다. 호남과 수도권 지역 주민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고, 강원·영남·충청 지역 주민이 보수적이다. 호남지역 주민들이 진보적인 것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민주투사 김대중’으로 그들의 정치적 열망을 집결해온 전통과 관련이 있다. 수도권 주민이 정치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도권 주민 중 호남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 또 고학력·젊은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다.

요컨대 서구사회의 이념 지형이 계급적 기반에 바탕을 둔 반면, 한국의 그것은 세대와 교육수준 및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가구 소득에 따른 이념성향의 차이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사회에서 이념이 계급의 선을 기준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